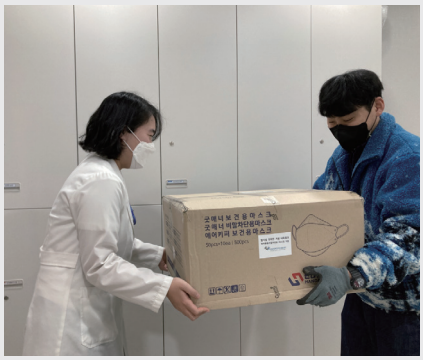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 Monthly
# 나눔과행복소식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3.01

## 미션
MISSION

#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 핵심가치
CORE VALUE

###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세계적 국내기업 마이다스아이티 (01.27)

## 특별강연 (이형우 회장님, 최원호 실장님)

지속적인 무스펙 채용으로 유명한 마이다스아이티는 HR문화에 혁신을 일으켜온 기업입니다. 건설SW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이는 세계적 기업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든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내기업입니다.

1/27일 오후, 마이다스아이티 이형우 회장님과 최원호 실장님이 특별강연을 위해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이형우 회장님께서 '사람이 답이다'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마이다스 기술은 단순히 건설 분야(건축/토목/지반)의 SW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분야는 물론 경영과 의료분야의 SW사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뇌분석과 치매진단 등 의료솔루션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중심 경영에 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이어 최원호 실장님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중심 HR경영 시스템은 자연의 결에 따라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람의 육성을 통해 세상의 행복을 돕는 경영이라 말씀하시며 그것을 씨앗과 토양, 날씨와 태양에 비유하면 설명해주셨습니다. 무스펙 채용으로 국내에서 유명한 마이다스 아이티도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며 채용설명회, 관상면접, 관찰면접 등 다양한 시도 끝에 뿌리내린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AI역량검사로 이어졌고 신뢰성 있는 AI역량검사 타당도로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인재 채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연주의 인본사상을 지향하며 '사람이 답이다'며 과학에 인생과 경영을 묻는 마이다스아이티,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라는 미션을 가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결국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던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재활치료1팀
# 2023 워크숍 (01.12)




먼저 2022 워크샵 OKR파티를 통해 파트별 성과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파트별 발표후 파트원들의 수고에 보답으로 작은만한 선물 증정도 있었고 중간중간 경품 추첨도 있었습니다. 2023년 재활센터 object인 3가지 주제를 정하고, 2개 파트씩(1,3파트 / 2,5파트 / 일상재활,척수손상파트) 파트원이 모여 KR을 완성하였습니다.




# OKR 파티 & New OKR



사회사업팀은 한해 연간사업 마무리, 4분기 OKR 파티를 통해 상호 피드백 및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2023년 OKR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사업팀만의 새로운 연간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사회사업팀
# 2023 워크숍 (01.05~06)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집단상담
# '마음톡톡'을 알고 계시나요?

본원 사회사업팀에서는 참여자 및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톡톡은 신청을 희망하는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화요일 6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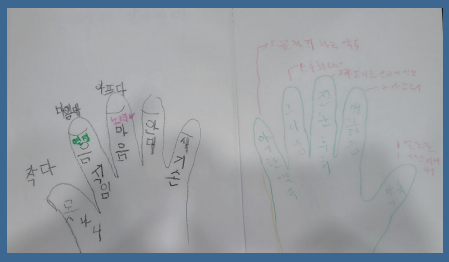
재활치료를 위해 본원으로 오게 된 이야기, 재활치료를 받으며 또는 퇴원 이후 삶을 고민하며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을 터놓으며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준비된 퇴원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우울한 마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즐기며 마음의 짐을 가벼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소통하고 격려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내　용 : 자기소개 및 관계형성, 마음여행, 마음채움, 마음공예
– 진행방법 : 2월부터 / 2개월 5회 / 18:00부터 / 최대 8명 / 6층 일상재활센터
– 신청방법 : 사회사업팀 김지헌 사회복지사(051-726-0536)









# 부산형 통합 돌봄
## 해운대에 On 보살핌 대상자 선정 회의 (01.17)

한○○ 참여자께서 해운대구청과 함께하는 해운대에 On 보살핌 신청자로 이번 달, '희희낙락 케어안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되셨습니다. 이에 사회사업팀 이지혜 부팀장님께서 한○○ 참여자 자택 내 LED 조명 및 편의시설 교체와 지자체 복지 서비스 연계를 의논하기 위해 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선정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해운대백병원 재활의학과
조근열 교수님과 함께 재활
실무자들이 본원에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병원만의 특별함이 있는
다양한 재활시스템에 관해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해운대백병원 재활실무자 '본원 견학' (01.10)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 간호팀과 함께하는
# 면회예약제 시행 중 (매주 화요일~금요일 저녁 6시~8시)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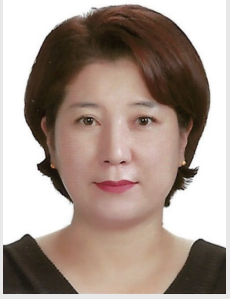
# 우리는 가족입니다.
## 1월의 신규입사자



간호팀(8W) 박은지 간호사



한방과 김종삼 진료부장



한방센터 유명자 간호조무사



영상의학과 오기호 진료과장



관리팀 김성빈 팀원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종 시 「방문객」 중 -

#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 퇴원 참여자

## 가정방문 (01.10 / 01.18)



지난 1/10일에는 퇴원 참여자인 김○현님(부산 양정 거주)의 가정과 1/18일에는 장○수님(울산 거주)의 가정에 방문하였습니다.

사회사업팀, 간호팀, 재활코치팀 등이 퇴원 참여자 가정에 방문하여 참여자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 다양한 맞춤형 재활·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 및 심리,정서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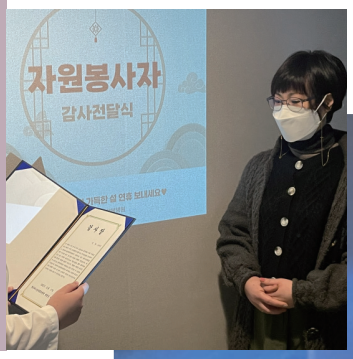
# 찾아가는 서비스
# 이미용 프로그램 (01.17)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미용

프로그램










# 이미용 설날 감사 선물 전달식 (01.17 / 01.20)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번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입원치료 중인 참여자분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를 맡아 나눔에 동행 해주신 이미용 자원봉사자에게 설날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시상식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주거개선사업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팀은 참여자 가정 구조 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일상속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해주신 조OO님의 거주지 내·외부 맞춤형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참여자 자택으로 가정방문을 나갔습니다.



# 주거개선사업 (01.17)
#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가정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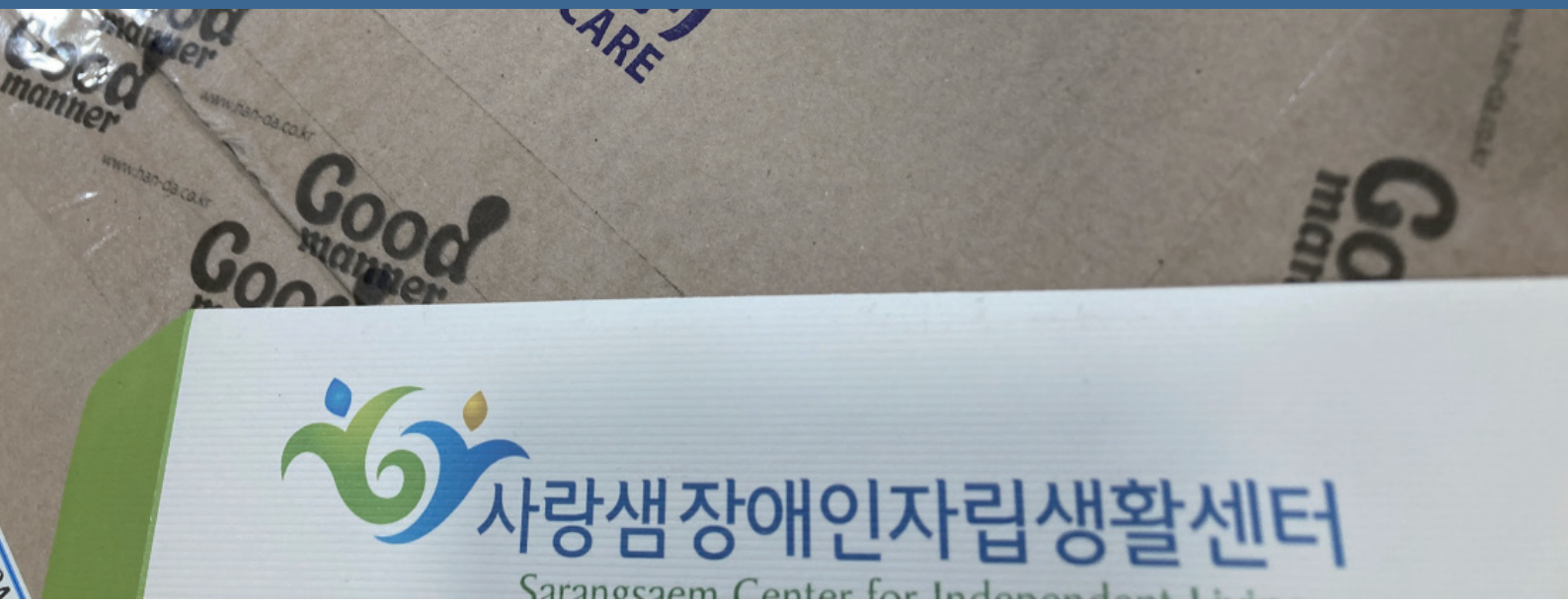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사회사업팀에 KF94 마스크 후원 (01.27)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 일상재활센터 (낮병동)

## 출석왕 자립왕 수상

(01.06)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홍보팀장의 '브런치' 아홉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나로서는 결코 계획한 적이 없는 일이다.**

우리 대부분도 그렇다. 우리가 택한 길은 주로 '우연히' 접어든 경우가 많다.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나로서는 결코 계획한 적이 없는 일이다.
_사이먼 사이넥《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타임비즈)

거침없고 열정적인 테드(TED) 동영상 강의로 유명한 사이먼 사이넥(Simon Sinek)의 베스트셀러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책의 내용이다.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평범했다. 내 생각이 그랬고 행동이 그러했다. 병원에 출근해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면 집에서 저녁을 보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사실 보통의 직장인임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홍보, 마케팅 관련 실무자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병원에서 근무하는가? 무엇 때문에 병원 홍보팀,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일부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관련부서에 취업한 분도 있다. 반대로 홍보, 마케팅과 관련 없이 병원에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변경된 분들도 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물 흐르듯이 흘러오신 분들도 있다. 기업이나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홍보, 마케팅 전담부서가 따로 있고, 회사나 병원 측으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는 겸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현직에서 간호사, 의료기사, 사무직, 코디네이터 등 본인의 전문직으로 입사했다가 우연찮게 홍보 일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 나 역시 그렇게 이 일을 시작했다. 누구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배울 곳이 한정적이라 생각했다. 강의도 제한적이다. 스스로 책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 책을 만났다.

지금 그 자리가 반드시 '당신'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별화는 조직의 아무개가 아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생각이 일정한 틀 안에 갇혀 있다면, 틀에 박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_강민호《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와이비)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의 시작은 같았다. 다른 자기계발서적처럼 애플,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좋은 사례와 델, 월마트의 좋지 않은 사례를 예로 들며 시작한다. 병원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책을 읽을 때 힘든 점 중에 하나다. 책의 좋은 사례들은 대부분 외국의 대기업 사례가 많다. 중소병원에서 홍보, 마케팅 실무자가 접목시키기에는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다 읽었을 땐 달랐다. 내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게 되었다. 중요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병원에서, 홍보,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는 의미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케팅이라는 내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의명분 때문이다.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껏 고무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고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흥분되고 신난다. 대의명분을 실현시킬 다양한 '무엇을' 찾는다.
_사이먼 사이넥《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타임비즈)

우리가 택한 길은 주로 '우연히' 접어든 경우가 많다. 책의 저자도 본인이 하는 일이 결코 계획한 적이 없는 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내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의명분 때문이다.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껏 고무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사이먼 사이넥 역시 마케팅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일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나의 Why는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이 일을 더 늦춰서는 안될 거 같기도 했다. 내가 병원에서 왜 홍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왜 방사선사도 하면서 홍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현실적인 답변이라면 두 가지 일을 하면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며 책을 덮었을지도 모른다.

이번에 달랐다. 이젠 좀 더 솔직한 나의 대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병원의 미션을 떠올렸다. 병원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의 중요성은 책의 후반부에 나온다. 근무하는 병원의 미션은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이다. 병원의 방향성은 이 미션으로부터 출발해 최종목적지인 미션에 도달한다. 병원에서 진료 받고, 치료받는 고객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게끔 하는 의료 활동이 병원의 존재의 이유다. 그럼 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쓰는 크고 작은 글들(블로그, SNS, 카카오톡 상담, 홈페이지 상담 댓글, 내부 안내문, 리플렛, 브로슈어, 각 부서 요청 서식 등)은 고객 분들에게 읽혀진다. 병원의 미션과 일치한다. 고객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 글들이 감동이 되고, 긍정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병원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에 이르렀다. 결국 실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미션과 개인의 미션이 일치될 때 본인의 존재의 이유가 생기게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완성된다.

첫째, 자신이 하는 일을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둘째, 일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있다고 느낄 때,
셋째, 그 일을 할 만한 지식과 기술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넷째, 일을 통해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때,
_류량도《우리가 꿈꾸는 회사》(쌤앤파커스)

내가 왜 병원에 근무하는지, 내가 왜 홍보, 마케팅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 열손가락에서 나오는 자음과 모음이 어울려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공감을 형성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다. 이렇게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타부서에서 업무 요청이 와도, 홈페이지나 SNS에서 상담글이 올라와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과 행동이 달라졌다. 내가 쓴 글들이 고객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자발적 긍정의 힘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 근무하는 홍보, 마케팅 실무자라면 이미 출판된 수많은 병원매출, 병원성과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한 스스로에게 진실 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3년 01월 31일
편집인 홍보기획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